

일본에서 열린 울트라 프로그램 제19, 20회 원탁회의

국내외 석학·전문가

“한 우물 파는 연구자세뿐” 이구동성

글 | 김우식 _ 연세대 명예교수/전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지난 달 일본 도쿄학사회관에서 국내외 석학 및 전문가로 구성된 울트라(Ultra)프로그램 제19, 20회 원탁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재료공학분야와 생명공학분야로 나누어 각각 3시간씩 집중 토의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각 분야의 주제 발표는 현재 일본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한인 출신 교수들이 맡았다.

울트라 프로그램은 2006년 과학기술부가 중심이 되어 올해까지 20회째 계속되어온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 출신의 세계적 석학이나 전문가를 주발표자로 초빙하고 해당분야 석학 및 전문가를 20명 내외로 초청하여 함께 토론하며 상호정보교환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진행되는 원탁회의형 프로그램이다.

올해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였다. 특히 올해 일본은 노벨물리학상 3명, 화학상 1명 등 4명의 노벨수상자를 한꺼번에 배출하였고 지금까지 총 13명의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하였기 때문에 회의참석자들은 일본의 노벨상 수상에 대한 큰 관심과 토의가 많았다.

집념, 장인정신, 독창성 등이 전제조건

회의를 주재하였던 사람으로서 토의되었던 의견을 요약하면, 노벨상을 목표로 하는 연구는 난센스이며, 실제로 중요한 것은 자기의 연구 분야에 대한 집념과 탄탄한 기초 구축, 한 우물을 파는 장인정신, 그리고 오직 하나뿐이라는 독창성을 중심으로 일관된 방향으로 끈기 있게 연구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자세로 연구하면 결국



한·일 울트라프로그램 제19회 원탁회의(재료분야)를 주재하고 있는 김우식 자문위원장

좋은 결과가 나오고, 그것이 십년 또는 수십 년 후에 검증과 평가를 받아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노벨상을 위해 표면적으로 공식화한다든가 조직화하여 접근하는 것보다는 우선 국민적, 국가적 차원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큰 관심과 애정, 창의성 중심의 자율적 연구풍토 조성, 과학기술육성을 위한 제도적 혁신과 지원, 그리고 기초과학 및 원천기술의 개발을 착실하게 수행해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특히 어느 교수는 한국인으로서의 아주 드물게 70년 동안 3대째 이어져 내려오는 대학 연구실의 책임자로 그 전통을 이어받게 된 것을 감격스러워 하면서 한 우물을 파는 연구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의 연구풍토는 해바라기 식이다. 너도 나도 첨단을 외치면서 소위 인기



제19회 원탁회의에서 재료분야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윤성호 큐수대 교수

있는 연구, 돈 많은 쪽으로 쏠린다”라고 따끔하게 지적하였다. 또한 한국의 연구평가제도에 있어서도 논문편수 중심의 평가 잣대보다는 이제 한편이라도 연구 내용의 중요성, 가치성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일본과 우리와의 차이점에 대한 논의에서 도쿄대학 박사학위를 받은 젊은이가 3대째 내려오는 가업인 작은 초밥집을 이어받고 운영을 맡았을 때 뜨거운 박수와 찬사를 보내는 국민성과 사회적 풍토가 우리 나라와는 크게 다르다는 말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지금과 같은 한국의 연구 환경이나 풍토에서는 일본의 과학기술을 따라잡기가 어렵다면서 일본은 절대로 자기들이 앞서가는 과학기술 분야의 주도권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또한 연구비 액수의 많고 적음은 문제가 아니며 연구자들의 정신이 문제라면서 실패를 두려워않는 연구자들의 자기연구에 대한 애정과 집착, 그리고 자기 일에 대한 긍지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또 다른 발표자는 교수로서 연구하면서 10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연구의 참다운 독창성과 그의 중요성을 깨닫고 독창적 연구에 정진하는 연구태도를 갖게 되었다면서 독특한 연구에는 자연히 국가나 기업의 지원이 몰린다고 말하였다.

오늘의 금융위기에 대한 말이 나왔을 때 “아무리 세계가 어려워져도 일본과 독일, 그리고 영국은 비교적 안정적일 것이다”라면서 그 이유로 “일본과 독일은 기초가 튼튼하다. 특히 과학기술의 기반이 튼튼하고 영국은 금융공학의 노후화가 뛰어난 나라이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한 말 또한 의미하는 바가 컸다. 휴식시간 없이 모처럼 진행된 솔직하고 뜨거운 원탁회의였다.

2년 전 필자가 과기부 책임을 맡고 있을 때, 일본 굴지의 연구소인 이화학연구소를 방문하고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노요리 이사장




제20회 원탁회의(생명공학분야)에서 우제태 중부대교수의 주제발표 후, 지명토론자들과 토론하고 있다

을 만난 자리에서 이화학연구소의 운영철학과 연구방침에 대해 물으니 자기의 철학과 방침은 간단하다면서 “NO.1이 되는 것보다 Only 1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1, 2등 등수를 놓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타의 추종을 원천적으로 불허하는 독창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말이다. 참으로 인상 깊은 만남이었다.

13:00으로 벌어진 일본과의 격차

지금까지의 노벨과학상 수상자만 하더라도 일본과 우리와의 격차는 13:0이다. 너무나 간격이 벌어져 있다. 여하튼 우리는 앞으로 일본과 아니 세계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강도 높은, 그리고 과감한 독창적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계적 금융대란의 파동과 경제침체의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제 이 어려운 때를 기점으로 무덤고 지루한 장마와 같은 정쟁이나 분쟁, 갈등이나 증오를 속히 물어버려야 한다. 그리고 지도자나 전문가들이 나서서 서로 무릎을 맞대고 격의 없이 오늘의 문제와 내일의 우리 후손들이 설움 받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길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길을 닦아나가야 한다.

우선 국가 발전의 핵심인 과학기술발전에 온 역량이 모아지길 바란다. 우리 과학기술계의 가라앉은 분위기를 새롭게 바꾸고, 우리의 독창적 과학기술의 개발과 이에 따른 산업경제의 기반을 공고히 다져나가는데 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 



글쓰는 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 졸업 후 동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 학과장, 연세대학교 총장, 제 27대 대통령 비서실장, 부총리겸 과학기술부 장관 등을 지냈다.